

## 쌀 증산 및 수요 창출 방안

한국의 식량자급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. 곡물자급률은 2011년도의 26.7%에서 지난해에는 22.6%로 떨어졌다. 쌀 생산량이 2011년의 422만 4,000톤보다 5.2% 감소한 400만 6,000톤에 그쳐 쌀 자급률이 83%로 떨어졌다. 2013년도 쌀 민간수요량 전망치 401만 5,000톤에 크게 못 미치는 양이다. 정부는 서둘러 매년 4만ha를 대상으로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던 '논소득 다양화 사업' 지원규모를 금년에는 5,000ha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. 그러나 쌀 생산 억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식량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쌀의 자급률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. 쌀의 수요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쌀 자급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.

### (1) 저소득 영세민 복지향상을 위한 쌀쿠폰 무상지원 제도 실시

미국의 푸드스탬프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7%에 달하는 저소득 영세민에게 쌀 교환권(쿠폰)을 무상 제공한다. 1인 월 10kg의 쿠폰(1인 120kg/년)을 공급하여 연간 42만톤의 쌀을 영세민에게 무상 공급한다. 이를 통해 현재 영세민들이 주로 먹는 라면 등 밀가루 제품의 소비를 줄이고 쌀의 소비를 늘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.

영세민 쌀 무상배급량 : 5000만 인구 x 0.07 x 0.12톤 = 42만 톤

쌀 소비확대 효과 : (120kg-70kg현재 평균소비량) x 350만 인구 = 17만5천 톤

이를 위한 정부예산을 산출한다.

### (2) 쌀의 등급화 유통체계 수립과 완전미 100% 쌀 생산 제도화

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곡의 도정수율을 현행 72%에서 68%로 낮추고 완전미 100%의 쌀 유통을 제도화 한다.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싸래기(쇄미)는 전량 쌀가루(미분)공장에 공급한다.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쌀의 관세화 개방을 대비하여 우리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쌀 수요를 5.7% 높이는 효과를 내며 쌀가공 식품 산업의 원료인 미분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한다. 이를 위해 쌀값을 5.7% 인상한다.

쌀 생산량 감소율 :  $(72-68) / 70 = 5.7\%$

쌀 생산 감모량(2011년 기준) : 422만 톤 x 0.057 = 24만 톤

### (3) 통일을 대비한 쌀 120만 톤 비축제도 법제화

한반도 통일 시점에서 부족되는 양곡의 양은 120만 톤 정도로 추산된다(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, 도서출판 식안연, 2013 참조). 통일을 대비하여 현행 양곡관리법에 쌀 비축량 120만 톤을 명시한다. 이를 위해 매년 60만 톤의 쌀을 2년간 비축하고 2년 후 쌀 가공산업의 원료로 방출한다. 비축쌀 60만 톤 중 40만 톤은 MMA 수입쌀 전량을 비축용으로 사용하며 국내생산 쌀 20만 톤을 추가한다.

이를 위한 정부예산을 산출한다.

이상의 쌀 소비확대로 총 61만5천 톤의 우리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. 따라서 국산쌀의 생산량 목표치를 연간 480만 톤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지확보와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가공산업에 공급되는 총 84만 톤의 쌀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. 현재 쌀 가공산업에 사용되는 65만 톤/년의 수요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특히 즉석밥과 쌀국수의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한다.

## 제 9회 식량안보세미나 개최계획

### 제목: 쌀의 증산과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

일시: 2013년 4월 16일(화) 14:00 - 17:00

장소: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

주최: 김학용 의원실

주관: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

후원: 농림축산식품부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한국쌀가공식품협회

### 주제발표

#### (1) 쌀의 수급현황과 문제점

발표자: 성명환 박사(한국농촌경제연구원)

#### (2) 쌀의 자급과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

발표자: 이철호 교수(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)

### 종합토론

좌장: 신동화 교수(전북대학교 명예교수)

토론자: 김용택 박사(한국농촌경제연구소)

박상희 실장(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)

송광현 전무(한국쌀가공식품협회)

심재규 과장(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)

위남량 박사(농업협동조합중앙회 양곡사업부)

윤홍선 박사(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)

이정환 박사(GS&J 인스티튜트)